

# KIA 가봉, 2군서 완벽투...기대감 UP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드류 가봉이 2군에서 완벽투를 선보이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가봉은 지난 21일 합평 켈린저 스피드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KBO리그' 퓨처스리그 연습경기

KT와 경기에 선발등판해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으며 퍼펙트 피칭을 펼쳤다. 직구 최고구속은 145km까지 찍혔으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다양하게 구사했다. 가봉은 6이닝 동안 18명의 타자

합평서 6이닝 삼진 9개 '퍼펙트 피칭'

개막 앞두고 준비 완료...1군서 점점 이어가

를 상대로 단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는 무결점 투구를 했다. 필요할 때마다 삼진을 슈어내 상대 타선을 압도했다.

시즌 개막을 앞둔 KIA로서 반색할 만한 내용. 같은 날, 1군 연습경기 삼성전에 등판한 또 다른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가 4이닝 동안 4피안타 4삼진 1실점으로 깔끔한 내용을 보여준 가운데 가봉 역시 구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KIA는 지난해 외국인 투수 조 윌랜드-제이콥 터너가 기대를 밑도는 성적을 보이자 전원 교체결정, 브룩스와 가봉을 새롭게 영입했다. 구단은 사상 첫 외국인 사

령탑 맷 윌리엄스 감독의 인적 네트워크까지 활용하며 철저한 탐색을 진행해 두 선수를 영입했다.

브룩스가 스프링캠프때부터 인상적인 내용을 선보인 반면 가봉은 다소 페이스가 늦었으나 개막이 다가오자 준비를 마친 모양새다.

KIA는 국가대표 에이시양현종을 필두로 브룩스-가봉이 원투스리 펀치를 꾸릴 예정이다.

2군에서 호투한 가봉은 조만간 1군 연습경기에서도 점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일정 상 4경기만 예정된 연습경기에서는 등판 기회를 잡기 어려웠으나 연습경기가 3경기 추가될 예정이기에 이종한 경기에 나설 확률이 높다.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2020 KBO 연습경기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앞두고 외신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다.

## '무료 중계' 원하는 ESPN

### KBO리그 중계권 협상 '난항'

美NBC스포츠 "공짜로 얻으려는 ESPN 실망스러워"

한국 프로야구가 오는 5월 5일 개막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 ESPN에서 중계를 원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화제다. 그런데 ESPN 측이 중계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KBO리그 영상을 원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에 따르면 ESPN은 공개 입찰로 KBO리그 해외 판권을 획득한 '에이클라'와 협상 중이다. 문제는 ESPN 측에서 중계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영상을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KBO 관계자는 "해외에 영상을 제공하기 되면 위성송출 비용이 발생하고 영문 데이터피드(해설 중계음성이 깔린 영상)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ESPN 측에 무료로 영상을 보내달라는 입장이라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외 중계의 경우 영상을 송출하는 쪽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영상을 받는 쪽은 별도의 비용이 필요없다. ESPN은 광고 수익 등으로 추후 중계권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초기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쪽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KBO리그 해외 중계권 입찰을 따낸 '에이클라'의 경우에도 KBO에 역대 중계권료를 지불했는데, ESPN에서 무료로 영상을 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KBO 측 역시 "한국 프로야구가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공짜 콘텐츠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현지에서도 ESPN이 중계권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NBC스포츠는 이날 ESPN이 무료로 KBO로부터 영상을 제공받으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말할 필요도 없이 실망스럽다"라며 "미국에서 KBO리그가 중계가 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양 측이 공평하게 협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하이파이브 대신 하와이식 인사...프로야구장 새 풍경

비접촉 세리머니 고안  
다양한 아이디어 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프로야구 세리머니도 바꿔놓고 있다. 익숙한 하이파이브 대신 발을 맞대기도 하고 하와이식 인사법을 활용하는 구단도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오는 5월5일 정규시즌 개막을 확정했지만 코로나19 탓에 지켜야하고 또 피해야 하는 것도 많다. 선수단은 경기장과 덕아웃 외에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침 뱉는 행위도 피해야 한다. 또한 선수단 접촉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하이파이브 등의 단체 세리머니도 자제해야 한다.

아직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되거나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선수들은 여색하더라도 최대한 따르려 하고 있다.

특히 하이파이브는 프로스포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리머니로 홈런, 득점 등의 상황에서 동료 및 코치와 기쁨과 격려를 나누는 행위다. 다만 접촉이 이뤄지는 일이라 감염 우려를 피하기 힘들다.

이에 일부 구단은 하이파이브를 대신할 비접촉 세리머니를 고안하고 있다. 벌써 특별한 방식으로 하

이파이브를 대신하는 구단들도 있다. KIA는 맷 윌리엄스 감독이 하와이식 인사법에서 따온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주먹을 쥔 뒤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는 것으로 접촉 없이 자신의 기쁨을 표현한다. KIA 관계자는 "멋지다는 뜻으로 쿨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하와이에서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인사법으로 알려져 있더라"고 설명했다.

키움의 일명 '힙내세요 세리머니'도 돋보인다. 차켜세운 엄지 손가락을 다른쪽 손바닥이 받치는 동작이다. 이는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화 표현으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접촉이 없기 때문에 하이파이브를 대체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SK 역시 제이미 로맥이 연습경기에서 홈런을 친 뒤 허공을 향해 하이파이브를 펼치는 세리머니를 선보이기도 했다. SK는 선수단 차원에서 하이파이브를 대신할 자체 세리머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다른 구단들도 하이파이브를 대신할 비접촉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이틀간 열린 연습경기에서 많은 선수들은 맨손 하이파이브 대신 발로 하이파이브를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KBO 연습경기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5대 0으로 승리한 두산 이용찬과 김대현이 자축하고 있다.

대신하거나 글러브를 낀 채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으로 접촉을 최소화했다.

아직 대다수의 선수들이 기쁨의 순간, 무의식적으로 하이파이브를

시도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점점 이를 자제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보다 창의적이고 색다른 하이파이브 대체 세리머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귀국 벤틀 감독, 코로나19 검사 '음성'

4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파울루 벤틀 감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3일 "어제(22일) 입국한 벤틀 감독이 곧바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함께 들어온 코

칭스태프 3명도 모두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오늘 오전 결과가 나왔는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벤틀 감독은 지난해 12월18일 부산에서 열린 일본과의 동아시아인 컵 최종전을 마치고 12월21일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에서 머물렀다.

#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